

200-045. 사상사건 기소장 결정판결 사철(간도 제3차 공산당사건)

■ 1932년의 사상사건의 공판청구서, 예심청구서, 예심종결결정서, 판결서사본과 1930년의 동 종류철(일명 間島第3次共產黨事件이란 부제가 있음)의 합본 문서

- 1932년철에는 文宗穆·金奉龍 외 4명, 羅英哲 외 6명, 金台郁 외 10명, 朴河均·李光龍·姜鎭三·金洛俊·全尙根 등 총 29명 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930년철(間島第3次共產黨事件)은 姜錫俊 외 47명의 예심청구서, 尹福松 외 2명 의 예심청구서, 元容文의 예심청구서, 張周璉 외 1명의 예심청구서, 姜錫俊 외 53명의 예심종결결정서, 姜錫俊 외 49명의 판결서가 수록되어 있다.

- 1932년 편철본

1. 文宗穆사건

1932년 1월 11일 검사가 치안유지법 위반죄명으로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판청 구서와 1932년 1월 30일 판사가 동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판결서이다. 文宗穆은 본적을 平南 平壤府 新陽里 27香地에 둔 당 31세로, 善在라는 가명을 갖고 있었다. 1927년 12월 韓國唯一獨立黨 上海促成會에 가입, 같은 달 上海韓人 青年同盟에 가입, 東方被壓迫民族反帝同盟에 가입, 韓國獨立運動者同盟에 가입하여 중국 및 만주지방에서 민족주의자와 같이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고 그 운동에 투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932년 1월 30일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2. 金奉龍 외 4명의 사건

金奉龍: 19세, 본적 京城府 靑葉町 2丁目 114

朴相潤: 22세, 본적 京城府 黃金町 6丁目 36

鄭靑山: 24세, 본적 京城府 竝木町 94

姜長福: 24세, 본적 京城府 大島町 122

李容尙: 22세, 본적 京畿道 始興郡 米川面 文原里 621

위 5명에 대하여 1931년 6월 2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범죄 사실은, 光復少年會 執行委員, 朝鮮少年總同盟 幹部 등을 역임하면서 各 少年團體를 結合, 龍山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932년 1월 19일 金奉龍·朴相潤·鄭靑山은 공판에 회부 하고, 姜長福·李容尙은 免訴하는 예심종결 결정을 하였으며, 1932년 2월 16일 판결에서 3명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朴相潤·鄭靑山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3. 羅英哲 외 6명의 사건

羅英哲: 20세, 본적 경남 馬山府 俵町 157

李相鮮: 19세, 본적 경남 昌原郡 熊南面 月林里

崔明임(?): 본적 경남 馬山府 萬町 10

朱寶培: 24세, 본적 강원 淮陽郡 淮陽面 支石里

洪鍾彦: 23세, 본적 경남 馬山府 石町 56

李用澤: 27세, 본적 경남 馬山府 石町 72

姜貞照: 27세, 주소 京城府 樂園洞 10

위 7명에 대하여 1930년 9월 2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은, 조선을 일본의 기속으로부터 해방시켜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 1928년 3월 ML 공산당사건에 연좌되었으나 만주로 도망, 검거를 면하였고, 1929년 9월경 귀국하여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예심종결결정에서 공판에 회부

할 것을 결정하였다. 1932년 3월 2일 판결에서 羅英哲 징역 2년, 洪鍾彦·姜貞照 징역 1년 6월, 李相鮮·朱寶培 징역 1년, 崔命출임(?) 징역 10월, 李用澤 징역 10월, 김행유에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4. 金台郁 외 10명

金台郁: 27세, 본적 함남 端川郡 利中面 沓洞里 583

鄭遇尙: 22세, 본적 전북 全州郡 全州面 完山町 262

崔乙出: 27세, 본적 전남 靈岩郡 西面 西鶴林里 367

朴奇盛: 22세, 본적 전북 金堤郡 萬頃面 萬頃里 301

李恒福: 25세, 본적 평북 江界郡 江界面 東部洞 1003

宣太燮: 26세, 본적 전남 求禮郡 馬山面 馬山里 153

黃永祿: 30세, 본적 京城府 益善洞 133

崔正烈: 27세, 본적 전북 全州郡 伊東面 麟后里 634

李廷雨: 23세, 본적 大邱府 明治町 2丁目 107

朴淑容: 26세, 본적 平壤府 新陽里 100 / 張台亨: 26세, 본적 함남 元山府 橋下洞 1

1930년 9월 18일 예심청구(치안유지법 위반)

1931년 10월 31일 예심결정에서 鄭遇尙·朴奇盛·朴淑容·張台亨·崔正烈은 공판에 회부되고, 金台郁·崔乙出·李恒福·黃永祿·李廷雨·宣太燮은 免訴되었다.

1932년 3월 25일 판결에서 鄭遇尙 징역 2년, 朴奇盛 징역 1년 6월, 朴淑容·張台亨 징역 1년, 崔正烈 無罪가 선고되었다.

5. 朴河均사건: 朴河均: 30세, 본적 함남 洪原郡 甫靑面 新坪里 23

1932년 4월 11일 출판법 위반 공판청구, 1932년 5월 3일 판결, 금고 5월

6. 李光龍사건: 23세, 본적 경기 利川郡 淸溪面 長湖院里 70,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미수, 강도, 총포화약류단속령 위반, 조선혁명군의 일원으로 국내에 잠입 하여 東一銀行 長湖院里支店에서 군자금을 탈취하고, 原州에서 체포되었다.

1932년 4월 23일 공판이 청구되어, 1932년 5월 23일 판결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7. 姜鎭三사건: 54세로 본적미상 주거부정이며, 보안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1932년 3월 17일 공판이 청구되었다. 1931년 1월경 만주 琿春에서 조직된 獨立團體 參議府의 團員으로 가입하여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1932년 5월 25일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9년 3월 2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8. 金洛俊사건: 38세로 본적 함북 明川郡 上靑南面 麻田洞이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청구되었다. 범죄사실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이다.

1932년 5월 6일 예심종결결정에서 공판회부 결정, 1932년 6월 20일 판결에서 징역 10년 선고

9. 全尙根사건: 32세로 본적 함북 會寧郡 八乙面 金生洞이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2년 5월 31일 공판청구되었다. 火曜派 朝鮮共產黨에 가입·활동하고 자금을 모금하여 조달한 사실로, 1932년 6월 30일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1930년 間島第3次共產黨事件綴本

1. 姜錫俊 외 47명 사건의 예심청구서: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朝鮮共產黨과 高麗共產青年會를 조직하여 조선을 제국주의로부터 이탈시켜 독립하게 하고 사유

- 재산제도를 부인하여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활동을 하였다(1930년 8월 1일 청구)
2. 尹福松 외 2명 사건의 예심청구서이며, 범죄사실은 전기 (1)과 같아 병합심리를 요구하였다(1930년 9월 25일 청구)
3. 元容文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범죄혐의로 예심을 청구하면서, 위 두 건과 병합심리를 요구하였다(1930년 11월 29일 청구)
4. 張周璉 외 1명의 사건도 위와 같은 사건으로, 1930년 12월 19일 예심을 청구하면서 위 3건과 병합심리를 요구하였다.
5. 姜錫俊 외 53명의 예심종결결정서이다. 앞의 (1), (2),(3),(4)의 병합심리로 총 54명에 대하여, 張海龍·崔彬·金永洙·李琦榮·姜亨求 등 5명은 免訴處分하고, 그 밖에 49명은 공판에 회부하였다.
6. 姜錫俊 외 48명의 판결서 이며, 판결내용은 張關璉 징역 10년, 尹福松 징역 9년, 姜錫俊 징역 8년, 李秉植 징역 6년 6월, 金德山 징역 5년, 鄭玄永·朴容燐·元容文·朴鳳基·姜泰範 징역 3년, 張極俊·金澈奎·張自權·田春沃·裴龍俊·池吉南 징역 2년 6월, 孫學武·韓明俊·嚴東豪·崔宗活·元翼常·元容權·金光湖·金忠信·趙雲端·金基石·金承起·朴英寅·張翼善·徐在華·蔡權·姜相範·曹秉燐·全成私·朴麟基·車鍾萬·曹永煥·南文順·李舜丘·金尙俊·金鳳基·李秉杰·姜東範·桂樂集·文振奎·金明星·李時舉 징역 2년, 崔泰勳·崔鉉國 무죄. 다만, 嚴東豪·曹秉燐·朴麟基·姜東範·全成弘·桂樂集·金鳳基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